

공정률 80%인데 타당성 조사라니…

별교~주암 구간 등 전남 주요 국도 공사 6곳 재조사

정부 예산 줄일땐 내년 착공 SOC 사업 등 차질 우려

전남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국도 확장공사 6곳에 대해 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벌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공사의 경우 공정률이 80%에 이르는데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재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 구(KDI)원이 지난 6월부터 국도 27호선 별교~주암 구간 등 도내 6개 도로 확장 사업지구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 대상 지구는 ▲별

교~주암 구간과 ▲국도 24호선 무안 현경~해제 ▲국도 2호선 광양 월전~세풍 ▲국도 77호선 여수 화양~적금 ▲국도 49호선 무안 일로~동탄 ▲국도 49호선 동탄~동강 구간 등이다. 이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별교~주암 구간과 월전~세풍 구간 등 2곳이며 나머지는 착공 준비 단계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시행 사업비와 실시설계 사업비 대비 증가분이 발생하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 구원에 의뢰해 해당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비

과다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남도 내 주요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전남도가 내년도 주요

SOC 확보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들 사업이 일부 차질을 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SOC 예산이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당장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할 이들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타당성 재조사 대상 중 별교~주암과 월전~세풍 구간은 공정률이 80%에 이르는 등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화양~적금 구간의 경

우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과는 무관한데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올라 재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사업이 대상 SOC 확장사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 KDI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축소나 연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KDI에 사업비 증가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완공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준비단계인 사업은 착공시기가 연기되거나 차질이 예상된다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타미플루, 신종플루 예방엔 쓰지말라”

WHO, 내성 위험 경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용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를 사용할 경우 내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타미플루를 예방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日만정

- 김종우



인준이 된다해도 면목이 없겠다

나랏돈은 눈먼 돈?

대검, 예산 도둑질 공무원 696명 기소

WHO는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 사례의 약 절반이 신종플루 감염 이전에 이를 사용한 것과 연계돼 있다면 서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 예방적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사용하거나, 타미플루를 사용한 후에도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내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기소됐으며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금을 몰래 빼낸 44명도 형사처벌됐다.

서울에서는 서류 조작으로 장애수당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3년간 26억 5천만원을 빼돌린 공무원 안모씨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성남에서는 특전사 교육단에서 군 양곡 청구·수령 업무를 맡고 있던 양곡 도소매업자 3년간 2억 7천만원 어치의 쌀을 빼내 따로 팔았다가 구속기소됐다.

빼돌려진 보조금은 개인 카드금 결제나, 자녀 교육비, 부동산 구입은 물론 도박자금이나 성형수술비로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는 3천명

작년 10월부터 전 공직자를 상대로 쌀 직불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3천명에 달하는 공직자가 직불금을 부당수령·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2천 583명, 공공기관 임직원 405명 등 모두 2천 988명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신청

자로 조사됐다. 자진 신고한 공직자는 2천 452명이었고, 나머지 536명은 행안부가 직접 대조 작업을 벌여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천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교육청 862명, 중앙행정기관 674명, 공공기관 533명, 지방공사 공단 52명 등이었다. /연합뉴스

사/원/모/집

모집부분	모집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식물포피드 남녀 영 헤어디제이서비스 신입 및 경력	그늘집 여 0명	판매담당	주부나부(40세 이하) 커뮤니티 활용 가능자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 한해서 개별통보)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처

- 미매일 및 우편접수 가능

- 미매일 : mannerwang@hanmail.net

▶근무조건

- 4대 보험가입, 기숙자제공, 우수사원표창

- 경조금, 의료비지원

▶기타사항

- 경영지원팀 최경식대리

- 연락처 : 061)320-7716

▶임평마이너스티 컨트리클럽

드림결혼정보

국내/국제 결혼전문

조흔·재흔 성사시까지 맞선 주선!

국내는 호남과 서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010-6790-5408

제37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8년 6월 30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현금 및 예치금	84,316,967,829	352,380,803,139	5,183,505,346
II. 예금 및 현금성자산	137,154,315	389,400,862,977	7,796,434,816
III. 가 치	84,179,813,314	0	0
IV. 유동자산	14,344,368,997	15,230,518,576	1,324,004,982
V. 기 대 매 출	2,228,751,351	1,077,019,625	10,770,169,625
VI. 기 대 입	8,931,934,550	791,168,884	0
VII. 기 대 출	3,183,583,000	0	0
VIII. 대출자금	255,408,308,778	998,232	1,722,500,000
IX. 대손충당금	4,012,564,854	1,787,768,170	787,768,170
X. 대손충당금	260,598,767,709	0	0
XI. 대손충당금	24,900,677,113	97,045,454	524,631,399
XII. 대손충당금	-297,358,157	0	0
XIII. 기타 대출자금	4,389,120,793	0	0
XIV. 대손충당금	-139,391,922	0	0
XV. 유동자산	11,545,460,294	387,611,321,715	25,700,000,000
XVI. 유동자산	14,664,719,969	0	0
XVII. 유동자산	-3,109,259,665	0	0
XVIII. 유동자산	20,078,738,543	0	0
XIX. 유동자산	32,376,640	0	0
XX. 미수금	2,476,844,615	0	0
XXI. 미수금	21,284,250	0	0
XXII. 미수금	96,396,184	0	0
XXIII. 미수금	309,610	0	0
XXIV. 기타 생활수당자산	0	0	0
XXV. 부동산	114,694,122	0	0
XXVI. 부동산	12,286,567,432	0	0
XXVII. 부동산	2,805,281,904	0	0
XXVIII. 부동산	856,597,387	0	0
XXIX. 부동산	593,297,399	0	0
XXX. 부동산	0	0	0
자 산 총 계	385,893,845,151	385,893,845,151	385,893,845,151

2009년 09월 28일

(주)상업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김현섭

김사의견 :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37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대주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상남



살아 있었구나

맞아하고 있다.

추석 이산가족상봉 둘째날인 27일 남측 상봉단 할머니들이 오찬 만남을 위해 금강산 호텔에 들어서며 활짝 웃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 북측 봉사원들도 웃음으로

/연합뉴스

국군포로, 60년만에 두동생 만났다

남북이산가족 추석 상봉 이틀째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 행사가 지난 26일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시작돼 남측 이산가족 97명이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 228명과 60여년 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상봉행사에선 특히 국군포로 한 가족과 낙북자 두 가족이 '특수 이산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났다.

북쪽에는 국군포로 이재석(79)

씨는 남한의 동생 정호(76), 정수(69)씨와, 1987년 10월 낙북된 동진호 선원 노성호(48)씨는 남측 누나 순호(50)씨와, 역시 동진호 선원 진영호(49)씨도 남한에 있는 누나 곤순(56)씨와 각각 상봉했다.

남북 어부 노성호씨가 남한 누나

순호씨에게 “여기 와서 장가도 가고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면서도 “한 시도 고향 생각, 누나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순호씨는 “옛날 모습 그대로네”라며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남북 어부 진영호(49)씨의 남측 누나 곤순(56)씨는 올케에게 한복을 선물했다